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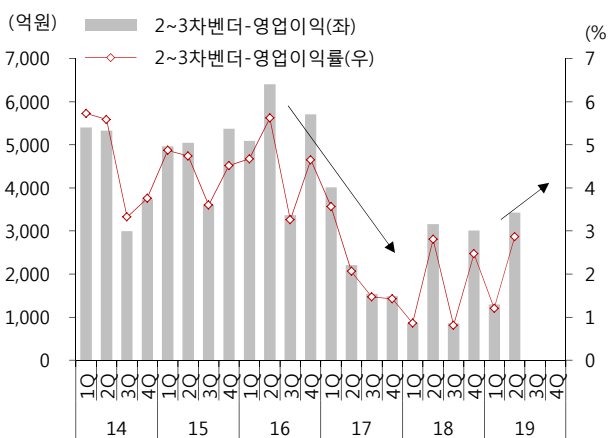
Issue Comment

- ✓ 언론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구조조정 계획 밝힘
위탁생산 물량 이전 등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UPH 조정 영향
- ✓ 수요 감소와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점차 확대
- ✓ 부품사도 영향. 주요 고객과 아이টে에 따라 차별화 지속 전망

르노삼성 구조조정 계획 발표, 부품사 간 차별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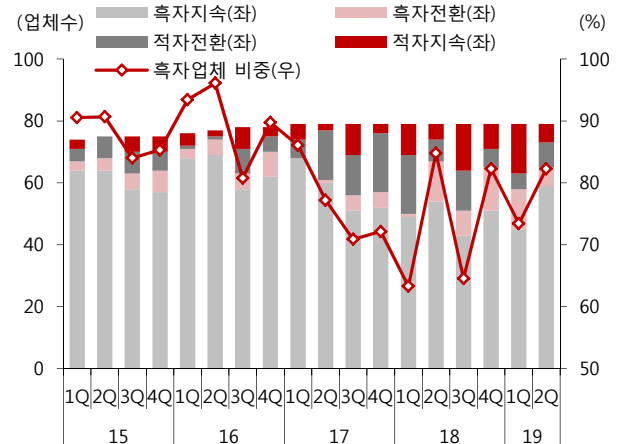
- 언론발표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공장 직원 대상으로 최대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을 실시하기로 발표. 시간당 생산량(UPH)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낮추면서 생산량을 25% 가량 줄임에 따라 유휴인력이 발생하기 때문
- UPH의 축소 원인으로 위탁 생산하던 닛산 SUV 모델인 로그 물량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됨에 따른 물량 감소(기존 10만대 → 6만대)와 내수판매 부진 영향을 꼽을 수 있음.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물량감소도 가능한 상황
- 쌍용차는 신차생산 일정 연기, 직원 무급휴직검토, 한국 GM은 2교대에서 1교대 전환 검토 등 생산물량 감소하는 방안 검토.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위치한 업체들도 수요감소와 경쟁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
- 이러한 완성차 업체의 동향은 부품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최근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Bosch도 자동차산업 수요둔화와 차량공유 확대, 전동화 등을 이유로 인력 감원계획을 밝힌 바 있음. 특히 디젤 관련 중심으로 감원 진행 예상. Bosch뿐만 아니라 ZF, 컨티넨탈 등 글로벌 업체들도 구조조정 계획을 밝힘, 국내 부품사도 유사한 흐름을 예상
- 19년 2분기 2~3차 벤더 실적은 완성차그룹의 판매믹스 개선과 물량 증가, 실적 개선에 수혜를 입은 업체들이 많았음. 하지만 부품사 전반적인 수혜라고 보기에는 수익성 악화가 크게 일어난 업체들도 존재. 주요 고객과 아이টে에 따라 업체간 차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주요 2~3차 벤더 합산 영업이익 추이 - 실적 개선 진행



자료: Quantwise, SK증권 주: 상장사 기준, 주 재무재표 실적 단순합산

2~3차 벤더 흑자업체 비중 - 업체간 차별화는 앞으로 지속 전망



자료: Quantwise, SK증권 주: 상장사 기준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